"오픈뱅킹 시대… 은행도 개방형 플랫폼 추진해야"

하나금융경영硏

인터넷은행·핀테크 등 경쟁 치열
주 거래은행 개념 악화로 수익↓

은행 모바일 앱 고도화, 인력 도입
핀테크 M&A·지분확대 등 모색을

정유신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첫번째줄 왼쪽부터),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서근우 한국금융연구센터 연구소장, 정지만 상명대학교 교수가 관계자들과 포즈를 취했다. /KEB하나은행

오픈뱅킹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은행도 개방형 모바일 플랫폼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KEB하나은행 산하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오픈뱅킹 시대, 한국 은행산업의 미래'에서 전문가들은 오픈뱅킹이 구현되면 금융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선택을 수월하게 하는 장점을, 금융업자에게는 금융소비자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과 신규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또 오픈뱅킹의 활성화를 위해선 제공되는 데이터의 범위와 연결 방법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픈뱅킹이란 은행의 결제망을 핀테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으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하나로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이체를 할 수 있다. 이달 중 은행권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 오는 12월께 전면 도입된다.

양성호 웰스가이드 개발부문 대표는 "오픈뱅킹은 금융정보의 공유를 의무화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판매나 자문플랫폼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를 전제로 스크래핑 등 기존의 데이터 연결방법을 제한할 경우 일부 서비스의 중단, 신규개발 중단과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며 "금융업계에서 공동 운용하는 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의 경우에도 '공동'이라는 속성 때문에 제공 데이터의 범위를 최소화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순 조회, 계좌이체 등 비교적 간편한 개인금융 서비스에서는 오픈 API에서 제공되는 정보 정도로 충분하지만 맞춤형 개인자산 관리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구현하려면 더욱 상세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사가 고객의 이동 경로를 따라 개별 API를 연결해 채널을 확보하고 개방형 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픈뱅킹 시대를 맞아 은행이 개방형 플랫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시홍 금융결제원 신사업개발실장은 "오픈뱅킹으로 은행·인터넷은행·빅테크업계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거래은행 개념이 약화되면 고객 이탈, 은행 수익성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은행들의 조회 및 이체, 펌뱅킹 수수료 체계의 전반적인 인하가 불가피하며 은행도 개방형 플랫폼 사업자로 변신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실장은 각 은행의 모바일 앱을 고도화하고, 사용자 경험·사용자 환경(UX·UI)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오픈뱅킹에 최적화된 전산시스템과 조직·인력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은행 자체 API의 개방 범위를 전략적으로 결정하고, 핀테크업체의 인수합병(M&A) 및 지분투자 확대도 모색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픈뱅킹 서비스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정보 관련 법률 또한 전반적으로 재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픈뱅킹을 통한 신규사업을 허용하기 위해선 ▲은행 등 고객정보 보유기관의 제3자업자에 대한 API공개 및 정보제공의무의 규정 ▲고객의 정보이동권의 규정 ▲제3자업자의 고객정보 접근 및 이용의 규정 ▲은행업 등 금융업과의 관계에 대한 법률상 규정이 명확히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럽연합(EU)의 PSD2와 GDPR, 일본의 2017년 은행법 개정사례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삼성카드, '2019 홀가분 마켓' 성황 삼성카드는 지난 12일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진행된 '2019 홀가분 마켓'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3일 밝혔다.올해로 6번째 열린 2019 홀가분 마켓에는 총 8만5000여명이 찾아와 2014년부터 6년간 41만명이 방문했고, 셀러는 160여 팀이 참가해 올해까지 1200여 팀이 참여했다. 홀가분 마켓은 중소상공인·청년사업가·사회적 기업 등 셀러들이 별도 비용 없이 제품 판매와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셀러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삼성카드

대출시 예치금·수수료 요구는 불법

금감원 Q&A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해야

Q.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통해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만 일정 금액을 6개월 예치해야 한다는 점이 조금 꺼림칙합니다. 저리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예치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업체를 믿고 대출을 받아도 될까요?

A. 대출중개업체가 고객에게 예치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예치금, 각종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를 납부했다면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와 같은 불법사금융 관련 주요 상담사례는 책자형태로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주 상담을 신청하는 사례를 몇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일단 피해자는 은행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급정지 이후에는 해당 계좌에 다른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액을 고려해 피해자별 환급금이 결정되고, 환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환급진행상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빚 독촉도 주요 상담 사례 중 하나입니다. 소위 '선이자'를 포함해 감정비용, 공증비용 등 명칭을 불문하고 대부업자에게 납부한 모든 금액(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정보 조회비용은 제외)은 '이자'로 간주됩니다. 연 24% 이상의 이자를 요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또 정당한 사유없는 반복적 전화, 방문이나 폭언, 협박도 불법적인 추심이므로 신고센터에 신고하길 바랍니다.

/김희주 기자 hj89@

보험사 신지급여력제도 대비 현장 컨설팅

금감원, 25일까지 12곳 방문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까지 12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신(新)지급여력제도 영향평가와 관련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독당국은 지난 7월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2.0)을 마련하고,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K-ICS 도입 시 재무적 영향 및 수용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계량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비대면 상담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있지만 회사별로 신지급여력제도 내용 및 계량영향평가 방법에 대한 이해도나 이슈사항이 상이하다"며 "전체 대상 설명회 등과는 별도로 개별 회사 면담을 통해 회사별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방문 컨설팅 희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생명보험 6개사, 손해보험 6개사 등 12개 보험회사가 현장방문 컨설팅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를 대상으로 계량영향평가를 제출해야 하는 이달 말 전에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현장방문 과정에서 청취한 업계 의견과 향후 계량영향 분석결과, 보험회사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중 국내 금융·보험환경에 부합하는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현장방문 컨설팅 계획〉

회사	12개 보험회사(생보 6, 손보 6)
기간	2019.10.14~10.25
인력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 직원 및 IFRS17 도입 준비작업 T/F 반원 등 6~8명
주요내용	K-ICS 2.0 내용 및 계량영향평가 결과자료 작성 방법 등 질의·응답, IFRS17 및 K-ICS 관련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

우리은행, 19일 신입행원 공채 필기시험

서류 전형 통과자 5000여명 대상
서울지역 6개 중·고등학교서 진행

우리은행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신입행원 공채를 진행 중이며, 서류전형을 통과한 필기시험 대상자 약 5000여명을 오는 1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필기시험은 오는 19일 실시한다.

이번 필기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울지역 6개 중·고등학교에서 약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개인금융·기업금융·지역인재·WM·IT·디지털·IB·리스크, 자금·글로벌 등 9개 지원부문에 따라 각 직무와 연관된 문제가 출제될 예정이다.

필기시험은 총 2개 교시로 나눠 진행된다. 1교시는 NCS직업기초능력평가로 구성되며, 2교시는 일반상식, 경제·금융 또는 직무역량 평가 문제로 구성된다. 1교시는 모든 응시자에게 공통 문제로 출제되지만, 2교시는 지원부문에 따라 별도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응시자는 지원부문에 맞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우리은행 채용담당자는 우리은행 취업을 위해 부단히 준비해 온 지원자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필기시험 합격 노하우로 다음의 세 가지를 안내했다.

우선 NCS직업기초능력평가 문제 유형을 반복적으로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NCS직업기초능력평가 문제의 최신 유형을 반복적으로 연습풀이 하면서, 주어진 시간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팁으로 꼽혔다.

이어 일반상식 관련 내용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틈틈이 읽어두는 것이 좋다. 등·하교 시간, 대중교통 이용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최근 경제신문과 서적을 많이 읽고 메모하는 것이 점수 향상 비법이다.

마지막으로는 지원 부문과 연관된 기초 전공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이 지원한 지원부문과 연관된 전공 지식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깊이 있는 학술적 지식 보다는 기초 전공지식 수준의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니 마지막까지 시간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이번달 23일 예정이며, 12월 중 약 350여명의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민영 기자